38. 섬유제품 소비과정에서의 클레임사례와 시험방법(4) - 역오염과 이염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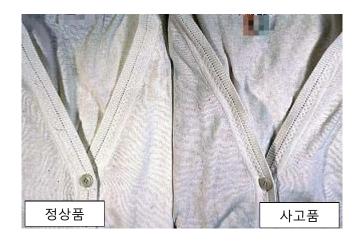
□ 역오염

○ 소재

- 역오염은 세탁시에 세탁액 속에 존재하는 오염(염료 포함)을 섬유가 흡착하여 원래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되는 현상으로서 심하게 오염된 것과 함께 세탁하 거나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낮은 경우 발생되기 쉬움.
- 역오염이 생기기 쉬운 소재는 폴리에스터, 아크릴, 양모이지만, 특히 폴리에스 터는 일단 오염을 흡착하면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쉬움.
- 이들 소재 이외에도 수지가공이 되어 있는 제품은 수지에 오염이 흡착하기 때 문에 역오염이 생기는 일이 많음.

○ 외관

- 색상은 원래의 색에 비하여 칙칙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.
- 부위는 세탁시에 생기는 것으로 전면에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, 이소재라 든가 부분적으로 수지가공 등이 되어 있는 제품에서는 그 부분만 생기는 것도 있음.





□ 이염

○ 소재

- 이염은 염색견뢰도가 불량한 제품과의 접촉, 세탁 등에 의하여 생김. 사고는
 - ① 견뢰도가 불량한 제품과 습윤상태에서 접촉한 경우



② 견뢰도가 불량인 상태이고, 사고품이 염료를 흡착하기 쉬운 제품인 경우, 예를 들면 견뢰도 불량에 의하여 음이온계의 염료가 세탁시에 용출된 상 태에서 사고품에 고착제라든가 양이온계 유연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는 보다 현저하게 오염이 발생된다는 사례가 있음.



- ③ 폴리에스터 등의 염색에 사용되는 분산염료는 열처리에 의하여 서모 마이 그레이션(thermo migration)을 만들어 습윤, 승화견뢰도가 저하되는 일이 있음.
- 사고는 기본적으로 견뢰도 불량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모든 소재에 일어날 수 있음.

○ 외관

- 색상은 견뢰도가 불량한 제품의 색과 같든가 또는 배합되어 있는 색임.
- 부위는 습윤상태에서 접촉이라든가 분산염료의 승화에 의한 것은 접촉부분에 만 오염이 생기고, 세탁시인 경우에는 전면에 생기는 경향이 있음. 또, 이들의 사고는 무엇인가의 작용에 의하여 습윤이라든가 승화가 일어나 이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발생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.

○시험

- 사고의 발생상황에 따라서 물이나 세탁, 승화, 물·용제의 적하에 대한 염색견 뢰도시험을 함. 이때, 첨부포는 가능하다면 사고품의 정상부를 오염포로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. 또 세탁 등으로 발생한 경우 특정한 제품에만 이염이 발생되었다면, 그 제품에 대하여 계면활성제 검출시험을 해보는 것이 좋음.